

벼 재배면적 줄여 농가 소득 높인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5' 발표...재배면적 8만ha 감축 할때 농업생산액 60조1118억원...농가소득은 2.6% 오른 5735만원 전망

올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통해 벼 재배면적이 8만ha 줄어들 경우 농업생산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고려하는 경우,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6% 오른 5435만원을 기록해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농업 생산액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 달성을 가정했을 때 지난해보다 0.1% 증가한 60조1118억원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벼 생산·공급량 40만 t을 감축함으로써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벼 가격 상승을 꺾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식량작물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6.2% 오른 10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채소 생산액은 작황 회복으로 지난 2년간 이상 기후로 인한 수급 불안 문제를 다소 해소하겠지만, 이로 인한 생산량 증가폭보다 가격 하락폭이 작은 만큼 전년 대비 4.1% 감소한 1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채소와 과실류는 여전히 평년보다는 각각 13.3%, 37.6%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KREI는 내다봤다. 축산업 생산액의 경우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0.7%, 4.2% 증가한 24조원으로 전망됐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감안했을 때 호당 농업총수입은 0.2% 감소한 393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던 경상재배 및 사료비 등이 하락하면서 농업구입가격도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보다 증가해 3년 연속 상

승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특히 벼 재배면적 시를 고려하면, 올해 농가소득은 2.6% 증가해 5435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호당 농업소득은 지난해보다 2.7% 늘어 1312만원을,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의 규모 및 지원 확대로 3.0% 증가한 1803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호당 농외소득과 호당 비경상소득도 1년전보다 각각 2.3%,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전망도 내놨다. 지난해 농가인구 수는 전년(208만9000명) 대비 2.1% 감소한 204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농촌 인구 감소 속도 역시 전체 인구 감소보다 가팔라진 만큼, 올해 전체 인구에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에 견줘 0.1%p 하락한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역시 지난해 2023년 기준 52.6%였지만 지난해(52.7%)와 올해(52.9%) 지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7349억 달성 경영 목표 수립

업무보고에서 중점과제 등 발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사진〉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정령·인공·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인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동력,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내세웠다. 이같은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올해 경영 목표인 7349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디지털 농업, 스마트 축산, 농촌 체류형 시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장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성장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지역본부는 '지역특화 자원 활용 재생



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기치로 한국농어촌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간과 에너지, 디지털 3가지로 분류해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2050탄소중립과 상향된 국가인실가속 감축 목표 등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자원을 재생에너지 개발 방안 및 주민 참여형과 지자체 주도형의 집적화 단지 등의 농촌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마늘·양파 경작신고로 농업경영체 변경까지 한번에

전남도, 31일까지 서비스 운영

전남도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산 마늘·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경작신고와 하면 농업경영체 정보에 재배작목 등록까지 동시에 변경 등록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작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 수급조절에 참여하는 첫 단계로, 2021년부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회가 주체가 돼 추진하고 있다.

경작신고 대상은 마늘·양파 재배면적 1000㎡

(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마늘·양파를 모두 재배하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재배 품목과 재배농지 등 정보가 변경되면 재배농가가 변경 신고토록 하고 있다. 농가에서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공익직불금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변경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마늘·양파 자조금단체에 경

작신고서 제출 시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경영체 정보 변경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경작신고는 (사)한국마늘연합회(<http://www.garlic.or.kr/>)와 (사)한국양파연합회(<http://www.konion.or.kr/>) 누리집에 접속해 '경작신고 면적조사'에 경작자 인적사항, 경작지 주소, 품종명, 경작 면적과 경영체 변경신고를 체크해 접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뽕빠이가 먹던 시금치 정말 몸에 좋을까

엽산·비타민 등 풍부...겨울 추위 견뎌 당도·영양 높아져

어릴 적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솟아 약당을 물리치는 주인공이 나오는 유명 만화가 있었다. 미국 만화가 E. C. 세가(1894-1938)가 만든 것인데 국내에서는 1968년에 '주먹대장 뽕빠이'라는 제목으로 MBC에서 방영한 뒤 인기를 끌었다. 워낙 인기가 높아 1970년대에 과거 이름에도 쓰이고, 개그맨 이상용이 뽕빠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뽕빠이는 항상 '블루루'라는 약당과 싸우는데 시금치를 먹으면 엄청난 괴력을 갖게 돼 쉽게 승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시금치는 일반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채소로 각인돼 있다.

시금치는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명아주과의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 식물이다.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천천히 자라는 채소다. 시금치는 우리나라의 토종 식물 같은 느낌이 많은 채소지만 원산지는 서남아시아로 오래전부터 중동지역에서 재배된 채소다. 시금치라는 어원은 적근채(赤根菜)라는 한자어의 중국어 발음인 '치근치'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 15세기 말쯤 도입돼 재배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기 남양주 이천·포천, 경북 포항(포항초), 경남 고성·남해(보물초), 전남 순천·신안(섬초) 등지가 주산지다. 생육에 적정온도는 약 15~20℃이고 서늘한 봄과 가을, 겨울에 잘 자란다. 25℃ 이상에서는 발아가 잘 안 된다. 산성 토양에 매우 약하다.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나뉘는데 동양종은 추위에 강해 가을과 겨울에 재배돼 겨울시금치라고 하고, 서양종은 봄과 여름에 재배되어 여름시금치라고 한다.

시금치는 3대 영양소뿐 아니라 수분, 비타민, 무기질 등을 다량 함유한 완전 영양 식품이다. 시금치의 엽산은 뇌 기능을 개선하여 치매 위험을 감소해주며 세포와 DNA 분열에 관여해 기형아 출생 위험을 낮춰주는 등 노인과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에게 효과적인 식품이다. 시금치

의 붉은색 뿌리에는 인체에 해로운 요산을 분해해 배출시키는 구리와 망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잎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런데 시금치는 왜 겨울에 나온 것이 유독 달고 맛있을까. 이는 '섬초'로 알려진 비금도 시금치의 생육환경과 유독 이맘때 인기라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섬초는 특히 겨울철에 수확한 것이 달고 맛있으며, 잎도 두툼하다. 같은 품종이라도 겨울철에 수확한 것이 맛있는 이유는 겨울철의 추위와 관련이 깊다. 월동 식물들은 대부분 겨울이 되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저장 등의 합성계가 활성화되어 물에 녹기 쉽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인 당, 포도당, 과당 등을 세포 속에 축적하는 반면 전분 합성계는 비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온이 약 9℃ 이하로 낮아지면 뿌리에서 수분의 흡수가 억제되어 당도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비타민 등의 영양 성분도 높아진다고 한다.

이쯤 해서 시금치 잘 고르는 팁. 좋은 시금치는 잎이 두껍고 진한 녹색을 띠고 윤택이 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뿌리는 붉고 색이 선명하며 길이는 10~15cm인 것을 고르면 된다. 사용 용도에 따라 무침용, 국거리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침용은 길이가 짧고 뿌리 부분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으며 국거리용은 줄기가 연하고 길며 잎이 넓은 것이 좋다. 반면 잎이 건조하거나 황갈색으로 변한 것은 질소의 함량이 낮아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추운 겨울 바닷바람을 이겨내고 자란 시금치는 당도가 높아 우리의 입맛을 돋우며 건강을 지키는 고마운 채소다. 몸에 좋고 맛도 좋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추억을 찾는 어르신들은 물론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까지 좋아하는 마성을 가졌다. 우리 모두 시금치, 그것도 섬초를 먹고 뽕빠이가 돼보자.

/bigkim@kwangju.co.kr

전남농기원,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2월 14일까지 접수...40명 선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미래 디지털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2025년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을 오는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전남생명농업대학은 1년 과정으로 디지털마케팅 20명과 친환경특용작물 20명, 총 40명을 선발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이론과 현장 교육을 함께할 계획이다.

디지털마케팅 과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농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다. 친환경특용작물 과정은 안전 먹거리와 고소득 작목 생산·보급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을 바라는 지원자는 전남도농업기술원(농업교육과)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농업기술원 누리집(www.jares.go.kr)을 참조하거나, 농업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